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로,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산업동향」

목 차

[정책동향]	-----	1
◇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슈분석]	-----	10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실적 분석 및 시사점		
[경기변동동향]	-----	29
◇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2018년 3/4분기 경기평가 및 4/4분기 경기전망)		
◇ 2018년도 4/4분기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분석		
[연구원동향]	-----	32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원가관리실 홍태선 선임연구원

hts@kici.re.kr

I. 개요

정보통신공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에 따른 새로운 융·복합설비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유무선 인프라의 구축 뿐만 아니라 가입망의 고도화 수요 증대 등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처럼 급변하고 있는 제반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법」은 1997년 전면 개정 후 약 20년간 부분적인 개정을 거쳤으나,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각종 질의요청 또는 업역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사업 관리·감독,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보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정보통신공사협회, 연구원에서는 각종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과기부, 협회, 시공업체, 설계 및 감리업체, 연구원으로 구성된 TF연구회의를 운영하며 다양한 주제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고에서는 그간 논의되었던 세부 과제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주요 주제별 현황 및 문제점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적정 여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공사업체 내에서는 업체규모에 따라 등록기준 강화/완화 찬반이 대립되는 상황
 - 관련 설문조사(2011~2015년 평균)에서는 현행유지 의견이 우세한 상황(현행유지 50.7%)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의 강화/완화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양면성이 있으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강화 및 완화에 따른 장·단점

구 분	등록기준 강화	등록기준 완화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 ○ 시공품질 확보 ○ 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효율성 제고 ○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신규 공사업체 진입 완화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 ○ 신규 공사업체에는 진입장벽 ○ 등록기준 유지를 위한 불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퍼컴퍼니 난립에 따른 불법행위 ○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공사 가능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강화 및 완화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와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



□ 경미한 공사의 범위 개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는 정보통신설비 및 정보통신공사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닌 자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타 유관 분야에서도 경미한 공사는 존재하지만 범위를 대폭 축소
 - 건설분야는 종합공사업종은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업종은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660㎡ 미만의 주거용 및 495㎡ 미만의 주거용 외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
 - '18.6.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 기준이 660㎡→200㎡로 대폭 강화되며, 건축업자에게 도급토록 하는 예외기준은 기존 단독주택에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으로 확대하여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금지

- 현행 정보통신분야 경미한 공사의 문제점
 - 경미한 공사는 관련 기술발전, 국가정보화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개정 과정에서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거나 기술발전으로 인한 용어의 재정의 등이 필요
 - (과도한 면적 기준) 현행 1,000㎡ 이하의 설치되는 일부 설비를 경미한 공사로 정의하지만 해당 연면적은 3~4층 규모의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서 불특정다수가 원활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공품질 확보가 필요
 - (기술발전으로 인한 개정 필요) 당초 회선이라는 용어는 과거 음성(전화)망 사용자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개념으로 현 기술상황에 부합한 재정의와 시장에서 사라진 카폰 등의 삭제가 필요

- (모호한 용어 개선) ‘단말기의 설치·증설·대개체’는 단말기 설치 외에 주변기기 또는 부대설비의 설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개정 필요
- (시장변화에 따른 대상범위 변경 필요) CCTV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여 단일공종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중 가장 많은 공사건수가 체결(2016년 기준 48,634건(15.1%), 1조 1,202억원(8.6% 비중을 차지))
- (관련 품질확보 제도와 상충) 「정보통신공사법」 제31조 하도급 제한, 제33조 기술자 배치 및 시공관리, 제37조 하자담보책임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 및 규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부실시공 양상

○ 타 분야와의 형평성 고려 필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취지) 민홍철의원 등이 2017.1.24.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종의 안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건축물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규모 건축물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주도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개정 사유

□ 건설업종 통합대응

- 종합건설업계에서는 각종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설업종 구분을 업역 칸막이로 규정하며, 건설업종 통합을 주장



○ 이에 관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논리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

○ 건설산업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논리

- (건설동향브리핑(2017)) ①업역간 칸막이 규제로 건설산업 노동생산성 하락, ②해외 주요국들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음, ③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④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사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경제 기여
- (건설연 연구(2014)) ①전문직별 공사업은 하도급 보호 규정 미약, ②감리·감독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 초래, ③건설관련 행정체계의 정합성 부족, ④추가이전비용, 예산절감 불리, 공사 간섭현상 발생, 중복 규제 등
- (법제연구원 연구(2012)) ①공사수행상 비효율성, 산업체계 왜곡, ②건축사법 개선 필요, ③국가계약법 상 일괄발주 원칙 위배, ④하도급법 등과 상호 중복 또는 개별체제로 통합 필요

○ 건설산업통합 주장의 문제점

- (생산성 하락의 원인) 종합건설업 생산성 하락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 부족이 주요 원인
- 경기불황이 예상되면 기업은 투자보다 기술 아웃소싱, 비정규직 고용으로 고정비용을 줄이는 등 임시방편적 인력 운용으로 대응
- 전문직별 공사업은 높은 생산성을 창출(2015년 기준 부가가치율 종합 건설업 19.3%, 정보통신공사업 38.8%, 전기공사업 47.0%, 전문건설업 45.7%)
- (해외 주요국 업종제한 규제) 미국은 각 주별로 공공계약 또는 건설계약 관련 법령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은 업역을 제한
- 뉴욕,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등 7개 주는 전기, 배관, 가스 설비, 냉·난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을 의무화

□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조항 개선

- (불명확한 정의로 자의적 해석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특정한 공사의 경우에만 분리발주의 예외를 허용
 - 그러나 법 제25조 제1항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
- (적법성 판단이 불가능) 다른 유사 법령으로는 국토부 고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있으며, [별표 1]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별표 2]에서는 대상공사의 선정기준 등을 제시
 - 그러나 세부적인 공종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기술, 공법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 상기 고시들이 정보통신공사의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공사들을 판별하는데 일부 참고할 수 있더라도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상위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분리발주 예외범위의 판단기준으로 적용이 불가능
 - 결국 발주기관에서 기본계획 이후에 작성하는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및 제안 이유에 대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적법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
-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공종이나 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
 - 특수기술 및 특수공법을 관련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종으로 제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또는 「통합방위법」 등에 따른 지역이나 구역 등으로 공사의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등으로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의 개선

- (1인 1현장, 상주 원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공사규모, 공사의 종류에 따라 상주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규정
 - 공사규모는 5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감리원을 배치토록 하며, 일부 예외 경우에는 1명의 감리원에게 중복 감리를 허용
- (추가 배치기준 검토 필요)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에서 연면적 1만㎡ 규모는 5층 정도의 건축물로서 정보통신부문 공사비가 최소 8억원 이상이며, 이는 기존의 배치된 감리원만으로는 효율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
- 유사 분야 감리원 배치기준 비교 분석
 - LH공사 국민행복주택사업 OOOO A1BL 아파트 1공구, 2,200세대, 연면적 144,952㎡, 전기·통신·소방분야 동일기간 감리용역

[표 4] 감리원 배치기준 비교사례 공사개요

유형	층수	세대수	연면적(㎡)	전기,통신,소방분야 공사기간
공동주택	6~25F	2,200	144,952.84	'18.03.30 ~ '20.05.16

- (분야별 감리원 배치) 현행 해당 법령에 따라 전기감리원은 3명(상주 2명(특급, 초급), 비상주(고급)), 소방감리원은 2명(특급, 초급), 정보통신감리원은 1명(고급)이 배치
- (분야별 용역 추정가격) 전기공사 감리비 8억원, 소방공사 감리비 6.2억원, 정보통신공사 감리비는 3.4억원으로 전기공사 감리비 약 43%, 소방공사 감리비의 약 56% 수준

Ⅲ.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앞선 세부 과제들 외에도 업역보호, 하도급 제한기준, 공사업체 관리·감독,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세부과제별 개선방안은 TF연구회의 등을 통해 개정안이 도출되었으나 향후 추가적인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추가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그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연구원은 ‘정보통신공사업 역량 강화방안(2014)’, ‘제22차 ICT정책해우소(2015)’,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체계 개선방안 연구(2016)’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협회에서는 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원사들이 요청하는 개선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및 영향분석, 정부 주무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과정 등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과 부가가치 향상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 [1] 건설기술진흥법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2017.1.24.)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경미한 공사의 범위
- [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6]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3),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2017.4)
- [8]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 건설산업의 생산성 퍼즐과 향상을 위한 과제
- [9]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7.1), 건설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10]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연구(2011년~2015년)
- [11] 한국법제연구원(2012),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실적 분석 및 시사점

산업정책실 도윤희 연구원

yunhee@kici.re.kr

I. 개 요

최근 ICT 인프라 분야는 사물인터넷,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등 각 분야의 연결을 위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은 ICT 인프라 산업의 한 주축으로써 첨단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스마트시대를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활용을 통한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¹⁾을 마련하고 ICT 인프라 고도화를 중요 정책으로 선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시장 환경은 국내 시장의 정체 및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의 2017년 실적은 전년대비 9.8% 상승한 14조 3천억 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14년을 기준으로 감소세²⁾를 보였으며 최근 4년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실적 또한 2012년 16.6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14억 원 대로 집계되었다.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12.27

2)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추이 : 1조 3,611억원(‘14)→ 1조 3,476억원(-1.0%, ‘15)→ 1조 3,053억원(-3.1%, ‘16)→ 1조 4,326억원(9.8%, ‘17)



유관산업인 건설업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14.7%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1] 향후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신축 건설 시장이 축소되면서 유지보수 시장이 급증하는 선진국형 시장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본격적인 저성장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이와 같이 공사업 내수 시장의 성장 정체와 공사업체의 저조한 경영성과에 대한 돌파구로써 현재 해외진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림 1] 정보통신공사업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외진출 실적 추이를 분석해보고 진출현황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II. 정보통신공사업 해외 수주실적 분석

1. 연도별 수주실적

정보통신공사업체의 2017년 해외진출에 따른 실적은 전년대비 16.2% 상승한 2,97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 이후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으나 2010년 최고치(2,894억 원)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7년 만에 수주액을 상회 하였고 업체별 평균 매출액 또한 2010년(17.6억 원) 이후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해외진출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실적을 보유한 업체 수는 전년대비 5.8% 상승한 183개사로 기록되었으며 2013년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186개사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진출건수의 경우 2014년 1,059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20.4% 하락한 843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3] 해외진출 업체수 및 건수 추이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해외실적이 정보통신공사업 전체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로 전체실적 증가와 함께 2011년에는 최대 2.8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3년 이후 1.9%대로 감소되었다. 진출 업체 수 또한 전체 등록업체수와 대비하여 2014년 2.46%의 비중을 차지한 후 2016년까지 2.1%, 1.8%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외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평균 1.94% 수준에 불과하며 연평균 0.7%의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은 국내 시장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대비하여 유사산업인 전기공사업의 경우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³⁾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실적은 전체 실적 대비 평균 5%의 비중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 대비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업 통계연보

4) 전기공사업 해외실적 비중 추이 : 4.8%('12)→ 5.61%('13)→ 6.29%('14)→ 4.87%('15)→ 3.84%('16)

[표 5] 해외실적 비중 추이

(단위: 억원, 개사, %)

구분	전체실적(A)	해외실적(수주액)		등록업체수(C)	해외실적(업체수)	
		수주액(B)	비중(B/A)		업체수(D)	비중(D/C)
2008	96,230	1,523	1.60	6,546	124	1.89
2009	107,475	2,206	2.10	6,834	136	1.99
2010	113,864	2,894	2.50	7,123	164	2.30
2011	115,590	2,126	2.85	7,361	144	1.96
2012	126,183	2,568	2.04	7,623	148	1.94
2013	129,584	2,634	2.03	7,948	187	2.35
2014	136,117	2,576	1.89	8,295	204	2.46
2015	134,767	2,343	1.75	8,733	183	2.10
2016	130,537	2,562	1.96	9,151	173	1.89
2017	143,267	2,976	2.08	9,588	183	1.91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 지역별 수주실적

2017년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은 2,046억원으로 전체 해외실적 중 68.8%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아메리카(247억원, 8.3%), 아프리카(241억원, 8.1%), 유럽(231억원, 7.8%), 중동(204억원, 6.9%) 순으로 집계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은 2015년 976억 원으로 전년대비 16.1%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8.4%, 63.3%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수주액과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 시장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은 세계 건설 수요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으로 타 지역 대비 가장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이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 비중이 급증한 반면 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경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59.1%, 27.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2016년에는 38.4% 증가한 604억 원으로 집계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공사 수주가 큰 폭으로 급감하여 수주액 비중도 23.6%에서 8.3%로 축소되었다. 해외건설 실적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지역의 2017년 기성액 및 수주액은 전년 대비 37.7%, 59.9% 감소한 34억불, 19.4억불로 중남미를 비롯한 지역의 건설경기 하락과 이벤트성 대규모 공사 수주 부재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4]

중동지역은 2014년 374억 원의 실적을 달성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 대비 59.6% 감소한 130억대로 집계되어 기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 5.2%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7년 수주액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기존 실적인 300억 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 실적에서도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수주액이 감소⁵⁾ 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실적 역시 감소세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표 6] 지역별 해외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아시아	116,408 (45.2%)	694 (65.5%)	97,644 (41.7%)	689 (68.4%)	125,357 (48.9%)	680 (74.9%)	204,666 (68.8%)	620 (73.5%)
아메리카	38,594 (15.0%)	79 (7.5%)	43,642 (18.6%)	76 (7.5%)	60,408 (23.6%)	73 (8.0%)	24,731 (8.3%)	49 (5.8%)
유럽	34,601 (13.4%)	72 (6.8%)	27,518 (11.7%)	58 (5.8%)	31,732 (12.4%)	42 (4.6%)	23,111 (7.8%)	53 (6.3%)

5) 해외건설 중동지역 수주액 추이 : 313.5억불('14)→ 165.3억불(-47.3%, '15)→ 106.9억불(-35.3%, '16)→ 145.8억불(36.4%, '17)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중 동	37,441 (14.5%)	118 (11.1%)	32,911 (14.0%)	96 (9.5%)	13,291 (5.2%)	61 (6.7%)	20,476 (6.9%)	53 (6.3%)
아프리카	28,245 (11.0%)	60 (5.7%)	31,786 (13.6%)	50 (5.0%)	25,195 (9.8%)	46 (5.1%)	24,129 (8.1%)	59 (7.0%)
기타	2,386 (0.9%)	36 (3.4%)	838 (0.4%)	38 (3.8%)	274 (0.1%)	6 (0.7%)	518 (0.2%)	9 (1.1%)
합 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908	297,633	843

※ 주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 공종별 수주실적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수주 공종 중 정보제어·보안설비는 2017년 1,115억 원으로 전체 해외실적의 37.5%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정보망설비(439억 원, 14.8%), 통신선로설비(396억 원, 13.3%), 정보매체설비(217억 원, 7.3%)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정보제어·보안설비는 2014년 이후 4년 연속 수주액이 증가(579억 원→ 686억 원 → 810억 원→ 1115억 원)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2014년 22.5%에서 2017년 37.5%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정보제어·보안설비 내 세부 공종으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가 2014년부터 매년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96.7%나 증가한 838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 비중이 75.2%까지 확대⁶⁾되었다.

6)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실적 추이 : 223억원, 38.5%('14)→ 266억원, 38.8%('15)→ 426억 원, 52.6%('16)→ 838억원, 75.2%('17)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의 경우 아시아 지역의 수주비중이 80.9%⁷⁾로 집중되어 있으나, 건별 평균 실적은 아프리카(12.8억 원), 아메리카(11.1억 원), 아시아(6.2억 원), 유럽(4.2억 원) 순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규모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신선로설비는 2014년부터 매년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대비 33.6% 감소한 39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구내통신설비는 국내 실적을 포함한 전체실적에서는 2조 7,632억 원으로(2017년 기준) 공종 중 21.2%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해외실적에서는 전년대비 27.7% 감소한 191억 원으로 전체실적 대비 6.4%의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7] 공종별 해외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통신선로설비	79,561 (30.9%)	67 (6.3%)	67,887 (29.0%)	52 (5.2%)	59,726 (23.3%)	35 (3.9%)	39,666 (13.3%)	46 (5.5%)
교환설비	2,859 (1.1%)	7 (0.7%)	4,764 (2.0%)	173 (17.2%)	266 (0.1%)	3 (0.3%)	2,393 (0.8%)	15 (1.8%)
전송설비	965 (0.4%)	5 (0.5%)	199 (0.1%)	1 (0.1%)	-	-	4,515 (1.5%)	6 (0.7%)
구내통신설비	17,080 (6.6%)	87 (8.2%)	15,718 (6.7%)	88 (8.7%)	26,438 (10.3%)	72 (7.9%)	19,105 (6.4%)	57 (6.8%)
이동통신설비	4,028 (1.6%)	12 (1.1%)	2,396 (1.0%)	7 (0.7%)	1,254 (0.5%)	15 (1.7%)	276 (0.1%)	5 (0.6%)
위성통신설비	485 (0.2%)	5 (0.5%)	15,962 (6.8%)	34 (3.4%)	19,832 (7.7%)	8 (0.9%)	20,765 (7.0%)	5 (0.6%)

7) 2017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지역별 실적 : 아시아 678억원(80.9%), 아메리카 78억원 (9.3%), 아프리카 64억원(7.7%), 유럽 17억원(2.0%), 중동 0.6억원(0.1%) 순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고정무선통신 설비	1,584 (0.6%)	3 (0.3%)	4,276 (1.8%)	2 (0.2%)	2,431 (0.9%)	3 (0.3%)	504 (0.2%)	2 (0.2%)
방송국설비	6,941 (2.7%)	16 (1.5%)	972 (0.4%)	8 (0.8%)	2,837 (1.1%)	15 (1.7%)	5,075 (1.7%)	18 (2.1%)
방송전송선로 설비	4,057 (1.6%)	6 (0.6%)	664 (0.3%)	6 (0.6%)	1,337 (0.5%)	2 (0.2%)	325 (0.1%)	2 (0.2%)
정보제어·보안 설비	57,962 (22.5%)	222 (21.0%)	68,676 (29.3%)	214 (21.3%)	81,001 (31.6%)	199 (21.9%)	111,554 (37.5%)	248 (29.4%)
정보망설비	46,476 (18.0%)	88 (8.3%)	25,732 (11.0%)	55 (5.5%)	20,464 (8.0%)	53 (5.8%)	43,909 (14.8%)	77 (9.1%)
정보매체설비	10,297 (4.0%)	17 (1.6%)	6,926 (3.0%)	19 (1.9%)	1,858 (0.7%)	10 (1.1%)	21,746 (7.3%)	11 (1.3%)
공항·항만통신 설비	3,617 (1.4%)	203 (19.2%)	3,037 (1.3%)	14 (1.4%)	5,349 (2.1%)	151 (16.6%)	17,517 (5.9%)	165 (19.6%)
철도통신신호 설비	-	-	-	-	7,118 (2.8%)	1 (0.1%)	350 (0.1%)	1 (0.1%)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	1,823 (0.7%)	9 (0.8%)	-	-	7,775 (3.0%)	4 (0.4%)	3,172 (1.1%)	2 (0.2%)
유지보수	2,451 (1.0%)	26 (2.5%)	3,386 (1.4%)	35 (3.5%)	2,428 (0.9%)	35 (3.9%)	3,394 (1.1%)	37 (4.4%)
선박설비	17,482 (6.8%)	286 (27.0%)	13,739 (5.9%)	299 (29.7%)	16,138 (6.3%)	302 (33.3%)	3,359 (1.1%)	146 (17.3%)
합 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908	297,633	843

※ 주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4. 업체별 수주실적

2017년에는 총 183개사가 총 2,976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이 중 상위 30개사(16.4%)가 전체 실적의 84.0%(2,500억 원)를 차지하여 일부 상위 업체를 통한 해외진출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상위 30개사의 실적 비중은 2014년(78.7%)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수주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8%로 전체 기업의 평균 증가율(1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적 상위 업체의 진출 건 증가율 또한 전년 대비 12.1%를 기록하여 2.7% 감소한 전체 기업의 평균 증가율과 대비되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시공경험 및 자본조달 역량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과 자본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외진출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업체별 수주실적 추이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수주액	건수
상위 30개 업체	202,777 (78.7%)	240 (22.7%)	185,252 (79.1%)	274 (27.2%)	211,839 (82.7%)	224 (25.9%)	250,019 (84.0%)	251 (29.8%)
상위 30개 업체 제외	54,899 (21.3%)	819 (77.3%)	49,089 (20.9%)	733 (72.8%)	44,419 (17.3%)	684 (79.0%)	47,613 (16.0%)	592 (70.2%)
합계	257,677	1,059	234,341	1,007	256,259	866	297,633	843

※ 주 : ()안은 전체 합계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Ⅲ. 시사점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경쟁구도가 포화상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시장 활용을 통한 공사물량 확대는 공사업체의 새로운 수익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시장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 수주액은 최근 5년간 전체 실적 대비 1.9% 대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유관산업 대비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0개사의 실적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업체 위주의 실적 집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별 실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수주액이 전체 실적 중 68%(‘17)의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주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합작투자(PPP) 등의 자금을 통한 대형 사업 수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종별로는 정보제어·보안설비, 정보망설비가 2017년 1,554억 원으로 집계되어 52.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세부 내역으로 통신케이블 설비와 더불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경비보안 설비 등의 실적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업체들의 주력 공종인 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의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의 높은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진한 해외진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 현지화 애로, 지원 체계 미흡 등의 원인을 들 수 있으며 해외진출 실적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주요 사항으로 시장조사 및 진출 컨설팅(60%), 해외시장 전문 인력(20%), 현지 투자 및 해외 지사화(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5]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개척에 따른 비용 지원, 다양한 정보제공 등 실효성을 보유한 지원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추진되고는 있지만 유사 산업 위주의 지원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 참고문헌

- [1] 이홍일, 박철한, “2018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 [2] 이홍일, 박철한,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 [3] 이윤관 외,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15
- [4] 지영구, “2017년 해외건설 기성실적 분석 및 전망”, 해외건설협회, 2018
- [5] 표창균 외,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기반구축: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2017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2018년 3/4분기 경기평가 및 4/4분기 경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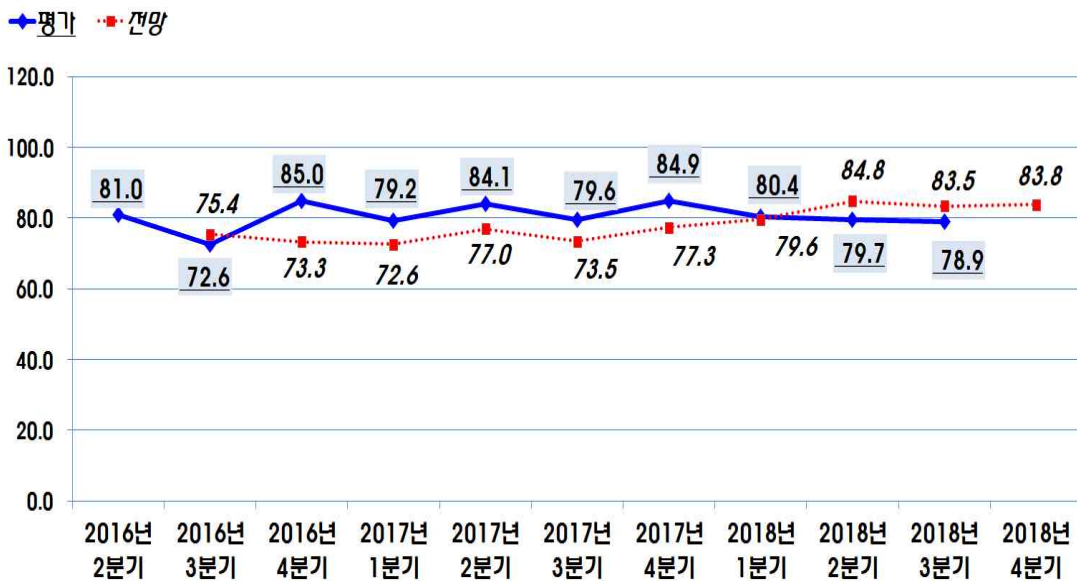
I.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BSI)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실적과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한 다음 향후 경기 변화에 대해 공사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 경기실사지수는 경영자들의 판단과 예측 및 계획이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
 - 한국은행,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서도 해당 분야 산업의 경기실사지수를 계속적으로 조사·발표함

II.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동향

- 2018년 3/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평가 및 2018년 4/4분기 전망
 - 2018년 3/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평가는 78.9p 로 2018년 2/4분기에 비해 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공공부문 시설공사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 발주량이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 건설 수주의 하락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됨

- 건설업은 2018년 3/4분기(8월 말 기준) 경기 평가가 67.3p (2018년 2분기: 81.9p), 전문건설업은 50.6p(2018년 2분기: 78.5p) 로 나타남
- o 2018년 4/4분기 정보통신공사업 경기 전망치는 2018년 3/4분기 경기 평가 대비 4.9p 상승한 83.8p 로 조사되었음
- 통신사업자들은 5G 상용화 계획을 앞당겨 연내 시행하기로 발표 하였으며,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예산⁸⁾’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로 인해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4/4분기 경기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그림 1]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분기별 경기평가 및 전망 (2016년~2018년)

※ 정보통신공사업 경기실사지수 보고서 전문은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에 게시되어 있음.

8) 기획재정부가 2018년 8월 27일에 발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노후된 공공시설물들을 개선하기로 계획



2018년도 4/4분기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분석

I. 전년 동기 및 직전 분기 대비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 비교

연간발주계획 자료를 토대로 향후 공사 계획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공사업체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

- '18년 4/4분기 예정된 공공분야의 통신공사 건수는 316여 건으로 공사 금액은 약 3,026억원 규모로 나타남
 - 전년 동기 대비 약 78여건 정도 줄어들고 공사 금액은 약 3,219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 ※ '17년 4/4분기 통신공사 건수 및 규모 : 394건 / 약 6,245억원
 - 또한 직전 분기(3Q) 대비 발주 건수(185건 감소)도 줄어든 반면 정보통신공사 발주 규모 모두 감소(약 74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 '18년 3/4분기 통신공사 건수 및 규모 : 501건 / 약 2,280억원
 -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이유는 크게 정부 SOC 예산의 감소에 따른 영향과 전년 대비 시설공사 발주계획의 상반기 조기발주 집중,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주택 공급의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4분기의 정보통신공사 규모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수경기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변경 및 공기업 투자가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 (약 3조 8천억원 추가 재정 편성)

II . '18년 3/4분기 공공부문 정보통신공사 세부항목별 발주계획 분석

- 지역별로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공사 건수와 공사 규모 모두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공사 건수) 지역별 정보통신공사를 보면 많은 지역의 발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감소한 지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 (지역별 공사 금액)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공사 발주규모가 큰 경기도와 경상북도, 서울특별시의 공사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파악됨
 -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전년동기 대비 발주 건수가 증가한 지역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단위 : 건, 백만원)

공 사 지역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공사금액
서울특별시	31	46,698	22	15,416	△ 9	△ 31,282
부산광역시	25	6,775	27	14,566	2	7,791



대구광역시	16	15,268	5	1,986	△ 11	△ 13,282
인천광역시	33	12,592	20	14,901	△ 13	2,309
광주광역시	2	122	10	2,170	8	2,048
대전광역시	25	15,506	9	12,643	△ 16	△ 2,863
울산광역시	9	3,483	7	1,894	△ 2	△ 1,589
세종특별자치시	4	2,636	7	7,761	3	5,125
경기도	60	194,428	61	89,513	1	△ 104,915
강원도	21	31,037	18	8,830	△ 3	△ 22,207
충청북도	19	42,601	22	31,647	3	△ 10,954
충청남도	23	21,694	22	26,372	△ 1	4,678
전라북도	23	43,910	14	13,197	△ 9	△ 30,713
전라남도	25	6,260	13	3,721	△ 12	△ 2,539
경상북도	28	134,091	28	40,066	-	△ 94,025
경상남도	40	18,426	7	10,323	△ 33	△ 8,103
제주특별자치도	5	1,745	16	2,423	11	678
기타**	5	27,261	8	5,211	3	△ 22,050
합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 공사지역이 불분명한 공사의 경우에는 '기타'로 표기함

[표 1] 공사지역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

- 공종별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통신선로, 구내통신, 정보제어·보안, 정보망, 정보매체, 철도통신·신호, 정보통신전용전기 설비공사 등 8개의 공종에서 발주될 것으로 조사됨
 - 전년 동기 대비 구내통신과 정보매체 설비공사의 경우에만 발주 건수와 공사 규모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공종에서는 건수와 규모면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백만원)

공종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금액
통신선로	77	236,810	25	3,561	△ 52	△ 233,249
전송설비	2	110	1	12	△ 1	△ 98
구내통신	215	250,560	218	255,409	3	4,849
정보제어/보안	66	26,139	44	5,950	△ 22	△ 20,189
정보망	7	8,136	9	514	2	△ 7,622
정보매체	3	30	5	3,334	2	3,304
항공/항만통신	2	860	-	-	△ 2	△ 860
철도통신/신호	14	100,400	8	32,670	△ 6	△ 67,730
정보통신전용전기	8	1,488	6	1,188	△ 2	△ 300
합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표 2] 공종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 발주기관별(국가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및 공공기관)로 보면 공기업·공공기관의 정보통신공사 규모(건수, 금액)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언급하였듯이 내수 경기 확대를 위한 공기업 투자가 하반기 이후에 진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2018.3Q보다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됨

※ '18년도 3/4분기 공기업·공공기관 정보통신공사 : 229건 / 약 1,739억원

-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금년 4/4분기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은 정부의 SOC 투자 축소에 따른 시설공사 물량 감소에 따라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발주 건수를 기준으로 '18년 4/4분기 발주기관별 공사 발주계획을 보면 공기업·공공기관에서 약 188건(전체 공사의 약 59.5%)으로 가장 많은 공사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국가기관(45건, 약 14.2%), 교육청(42건, 13.3%), 교육청(41건, 약 13%) 순으로 공사 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예측

※ '17년 4/4분기 역시 1) 공기업·공공기관(235건, 약 59.6%), 2) 교육청(120건, 약 16.6%), 3) 국가기관(50건, 약 12.7%), 4) 지자체(48건, 약 12.2%) 순

- 발주 규모를 기준으로 통신공사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공공기관이 약 2,670억원 정도로 가장 많은 공사 규모(전체 공사의 약 88.2%)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뒤이어 지자체(약 151억원, 약 5%), 국가기관(약 114억원, 약 3.8%), 교육청(92억원, 약 3%) 순으로 나타남

※ '17년 4/4분기에는 1) 공기업·공공기관(약 86.1%), 2) 국가기관(약 9.7%), 3) 교육청(약 2.9%), 4) 지자체(약 1.3%) 순

(단위 : 건, 백만원)

발주기관별	'17년도 4/4분기		'18년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증감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건수	금액
국가기관	50	60,569		11,388	△ 5	△ 49,181
지자체	48	8,142		15,100	△ 7	6,958
교육청	61	17,890		9,174	△ 19	△ 8,716
공기업 및 공공기관	235	537,932		266,976	△ 47	△ 270,956
합 계	394	624,533	316	302,638	△ 78	△ 321,895

* 시설 공사 중 통신 분야 공사비는 약 5.69%를 차지(출처 :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표 3] 발주기관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 발주시기별 공공부문의 정보통신공사 물량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8년 4/4분기의 발주 건수 변화를 보면 10월의 정보통신공사 물량이 가장 많으며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17.4Q와 비교하면 '18.4Q의 정보통신공사 물량 추세가 비슷한 흐름을 보임

※ 일반적으로 공공 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조기 발주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점차 감소함

(단위 : 건, 백만원)

발주기간별 ('17년 4/4분기)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발주기간별 ('18년 4/4분기)	건수	통신분야 공사금액*
10월	202	326,892	10월		165,217
11월	109	135,021	11월		92,024
12월	83	162,620	12월		45,397

[표 4] 발주시기별 정보통신공사 분포 (공사건수, 공사금액, 직전분기 대비 증감)

※ 본 자료의 전문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ici.re.kr)에 게시되어 있음.



정보통신산업연구원 동향

◆ 제 22차 이사회 개최(2018. 9. 6.)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정상호 이사장)은 2018. 9. 6. 웨라톤 팔레스 강남에서 제2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정구 신임원장을 선임하였다.



◆ NCS 및 활용패키지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2018. 9. 8.)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8. 9. 8.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NCS 활용패키지 개발관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2018년 제2차 표준시방서·공법 T/F실무 회의」 개최(2018. 9. 12.)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2018. 9. 12.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법개발을 위한 T/F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차 Immersive Media 연구반 회의개최(2018. 9. 20.)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이정구)은 9. 20일 20명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 VR 중심 BM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AR/VR 사업화를 위한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 NCS 활용패키지 개발용역 5차 개발워크숍 및 2차검토회의 개최(10.2)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10. 2.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NCS활용패키지 개발을 위한 개발(안) 및 표준화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산업동향』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 제반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http://www.kici.re.kr>)에서 발간하는 이슈 및 동향 분석 연구지로, 본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동향

제26호 (2018.11.)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발행인 정 상 호

편집인 이 정 구

발행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12번길 80

TEL (031)231-3400 FAX : (031)269-5210

<http://www.kici.re.kr>